

글로벌 에너지 동향 이슈 보고서

KETEP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 및 정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주제를 선정하여 매월 동향 이슈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ESG”

- I. ESG의 이해
- II. 글로벌 ESG 추진 동향
- III. ESG 평가 및 활용
- IV. ESG 관련 최신 뉴스
- V. ESG 대응 방안

Highlight



2019년 리서치 회사에서 실시한 착한 소비 활동 관련 조사에서 64.4%의 응답자가 '착한 소비' 활동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55.4%에 달했다. '착한 소비'란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소비 행위를 의미하며,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 '컨셔스(Conscious) 소비' 등으로도 불린다.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 아동 착취 제품 또는 동물 실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친환경 제품의 이용, 중고거래 등이 대표적인 착한 소비의 사례들이다. 이러한 소비의식

수준의 개선은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ESG는 사회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ESG를 실천하는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ESG 친화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은 30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관련 지원법을 도입하는 국가도 생겨났다. 최근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ESG를 실천하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ESG 경영이 의미하는 바와 ESG 관련 최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본다.

I. ESG의 이해

1. ESG의 배경 및 역사

- 경영활동의 범위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성장과 발전을 거치며 공장관리의 개념에서 근로환경/인력관리, 고객관리로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발생과 함께 지역사회, 협력업체, 기업지배구조, 자연환경, 성평등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개념으로 확대됨
- 즉, ESG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투영된 개념임
- ESG에 대한 학술적 개념은 1994년 존 엘킹톤의 저서에 나타났으며, 유럽의 경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책임투자의 관점에서 발전됨
 - 1994년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 존 엘킹톤(John Elkington)이 지속가능경영의 3대 기본 축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TBL(Triple Bottom Line)을 제시함
 - 200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행보고서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로 경제, 환경, 사회 지표로 구성된 GRI 1.0을 발표하고, 이후 몇차례 개정을 거쳐 2016년 GRI Standards를 발표함
 - 2004년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에서 발간한 "사회적, 환경적,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중요성"에서 지속가능 투자 관점의 고려사항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가지로 분류함
 -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UN PRI)이 지속 가능한 책임투자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ESG'로 요약해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ESG라는 약어식 표현이 확산되기 시작함
 - 2020년 1월 제 50회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토론 이후, WEF(세계경제포럼)에서 기업의 ESG 및 SDGs 성과를 비교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지속가능성 글로벌 표준 및 프레임워크를 도입, 활용하여 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Governance), 행성(Planet),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의 4개의 기본축, 55개 지표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공통지표(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를 발표함

2. ESG의 개념

- ESG는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된 비재무적 성과 지표임
 - 환경(Environmental) – 탄소배출, 폐기물, 자원고갈, 매연 등 생산, 소비, 폐기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환경·보건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

- 사회(Social) – 근로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기업 경영활동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 및 단체의 권리/이익 보호, 갈등 해소, 상생을 위한 노력과 활동 (나아가 사회 공헌 활동을 포함)
- 지배구조(Governance) – 이해관계자 관계, 소유지배구조,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기능 등 기업윤리를 지키며 수익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과 체계



- ESG 투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이 ESG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ESG 경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 ESG 투자는 주류, 담배, 무기제조 등 특정 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윤리적·종교적 동기에서 출발하여, 지구온난화, 기업비리, 인권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의미와 개념이 진화함
 - ESG 투자는 '06년 UN PRI(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ing) 주도로 6대 원칙, 33개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책임투자원칙이 제정되면서 국제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며 '15년 이후 관련 투자가 빠르게 증가함
 - ESG 평가는 리스크 관리와 성과 실현을 위한 체계의 구성, 목표 및 실천과제 설정, 이행 성과 등을 분석함
-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책임투자, ESG 투자가 확대되는데, 이는 ESG 투자가 장기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공적 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기 때문임

3. ESG의 중요성

- ESG 관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영 리스크 관리, 고객 관계 강화, 경영활동 비용절감, 미래 사업 기회 확보, 투자유치 기회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재무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함임
- 리스크 관리 : 오너리스크, 뇌물/부패, 제품 품질/안전, 배출/오염, 개인정보/데이터 보안, 노동자 건강/안전 등 스캔들 발생이 가능한 ESG 요소에 대한 예방 관리
 -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으로 20일 영업정지, 불매운동, 회장퇴임 초래
 -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과징금 부과, 기업 평판 및 매출 하락
 - 2013년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으로 편의점 가맹점주 연합이 단체 불매운동, 이후 임신 여직원의 퇴사 유도에 관한 보도가 더해져 불매운동 확대로 매출 하락
 - 2015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벌금, 손해배상, 매출/주가 하락

- 고객 관계 강화 : 공정무역 커피, 1 for 1 기부 제품 등 착한 기업의 활동에 동참하려는 소비자의 선한 의지와 *미닝아웃 트렌드는 ESG 경영활동을 통한 대외 인식 제고 및 고객 관계 강화의 기회로 작용
 - 인권 문제를 고민하는 공정무역 제품 구매
 - 환경문제를 동참하기 위한 친환경 제품, 업사이클링 제품 구매
 - 동물 복지를 우선하는 비건 뷰티, 페이크 퍼(fake fur) 제품 구매
 - 소비를 통한 빈곤국 아이들에 대한 기부에 동참

* 미닝아웃(Meaning out) : 신념을 뜻하는 'Mean' 과 나오다를 뜻하는 'Coming out' 의 합성어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제품/서비스의 소비행위를 통해 표현하는 현상을 의미함

- 경영 활동의 비용 절감 :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더 지속가능한 대안들로 전환하여 경영활동의 제반비용 절감 및 경제적인 인센티브 강화
 - 폐기물 생산 절감 및 재활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
 - 물, 전기 등 에너지 효율 제품 사용 및 에너지 자원 절약 활동에 의한 에너지비용 절감
 -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직원 관계 및 복지 강화
- 미래 사업 기회 확보 : 파리기후협정,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경제의 변화, 정부 정책(규제/지원)과 맞물려 도래하게 되는 미래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창출
 - 에너지 효율,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배출관리, 신소재, 알고리즘 최적화, 4 차산업 기술 융복합 등 환경·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술경쟁력 확보
 - 보건, 교육, 에너지, 금융, ICT 를 포함한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미개발 시장(빈곤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
 - 정부 및 기업의 ESG 사업에 대한 우선적 참여 가능성 확대
 - 배출권거래, 탄소국경세, 에너지효율인증 등 정책적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 선점 기회 확보

테슬라는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자동차 생산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5억 9,400만 달러의 수익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자동차 판매 수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투자유치 기회 확보 : 투명성, 윤리성, 사회성의 강점으로 책임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 기회 확보
 - 환경개선, 사회공헌 등 ESG 성과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 확대
 - 글로벌 투자포럼, 투자연합 등에서 제시한 사회적 책임투자, 지속가능 투자를 권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연기금,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됨
 - 국내에서는 2015 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의 합리적 책임투자원칙 수립·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8 년부터 국민연금 중심의 ESG 투자를 주도함
 - ESG 요인이 기업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000 개 이상의 학술 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연구에서 ESG 요인이 기업 재무 성과와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고 분석함 (UN PRI)

II. 글로벌 ESG 추진 동향

1. ESG 관련 글로벌 정책 추진 동향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15) 이후 유엔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2030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함
- 2019 년, 글로벌 3 대 신용평가사인 S&P, Moody's, Fitch 는 기업 신용평가지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하기로 결정함
- 2000 년 영국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NYSE(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도 공시의무를 추진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2018 년부터 유럽연합내 본사를 두고 있는 500 인 이상의 기업 혹은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 ESG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업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한 EU-Taxonomy 사업을 진행중임
- ESG 가 신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ESG 를 경영에 도입, 관리하는 기업에게는 기회로,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음
 - 유럽연합은 탄소 규제가 적은 나라가 유럽에 물품을 수출할 때, 관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2021 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함
 - 유럽과 같이 ESG 정책 및 규제가 강화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부품 또는 재료 공급업체 선정시 발주기관의 ESG 경영원칙에 부합하는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발족 및 ESG 이니셔티브 추진
 - '17 년 최초 발표된 TCFD 권고안은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ESG 관련 위험을 공시정보에 반영하기 위해 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전략(Strategy),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목표 설정(Metrics and Targets)의 4 대 영역 관련 지침을 제시함
- UN PRI(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서는 연기금, 금융/투자회사,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ESG 공시, 스튜어드십코드, 국가전략, 녹색채권 등의 국가별 책임투자 정책을 수집하고 있음
 -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책임투자 관련 정책 및 규정이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저소득 국가일수록 책임투자 관련 정책 및 규정이 적게 나타남

<국가별 책임투자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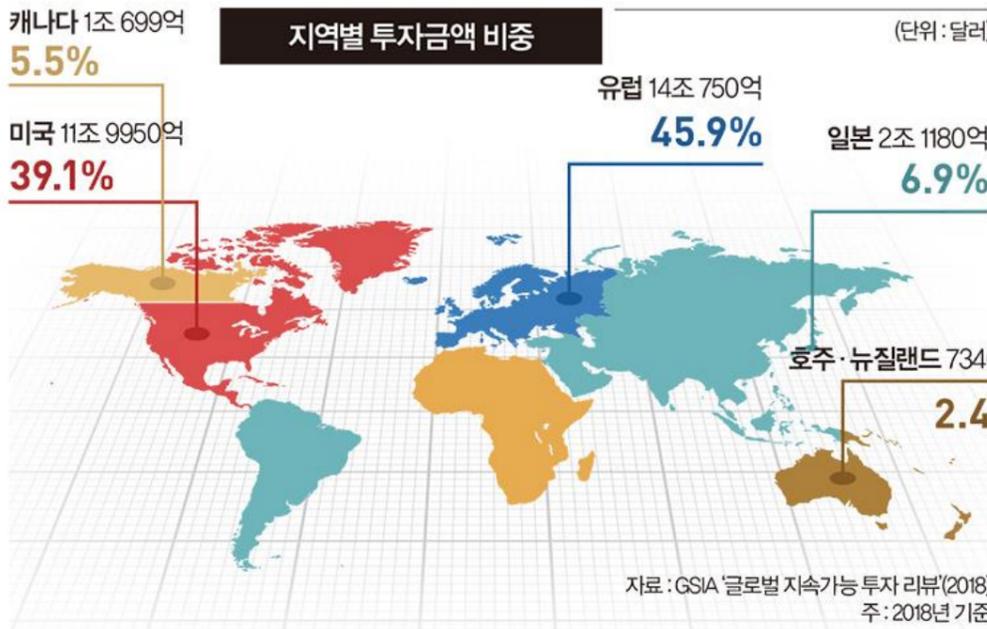
정책 및 규정 개수	국가 리스트
21~25 개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16~20 개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핀란드
11~15 개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미국, 스웨덴, 일본, 오스트리아, 그리스, 벨기에
6~10 개	룩셈부르크, 브라질, 포르투갈, 스위스, 체코, 폴란드,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인도, 키프로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말레이시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페루, 홍콩,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칠레, 콜롬비아
2~5 개	뉴질랜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자흐스탄, 캐나다, 태국, 루마니아, 모리셔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일랜드, 짐바브웨, 파키스탄
1 개	조지아,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로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베네수엘라, 베트남, 보츠와나, 북마케도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우간다, 중국,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튀니지, 필리핀

Source : PRI Regulation database, "Number of policies by country" (2021.01 update)

2. ESG 관련 주요국 투자 동향

- ESG 투자의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포럼, 투자연합 등에서 제시한 사회적 책임투자, 지속가능 투자를 권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연기금,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ESG 투자 추이



- 세계 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는 2012년 13조 3,000억 달러에서 2018년 30조 6,830억 달러로 3배가량 증가함
- 특히 2016년부터 최근 2년동안 투자 자산 규모가 34.3% 성장하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글로벌 ESG 투자의 85% 이상을 유럽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SG 투자의 자산 비중은 기관투자자가 2016년 80%에서 2018년 75%로 감소하였으며, 개인투자자는 2016년 20%에서 2018년 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 ESG 투자 동향
 - 영국은 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모든 주체들이 투자자산의 선택·보유·매각과 관련해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요소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정책 공개를 의무화하여 2000년 7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스웨덴 공적 연기금인 제 2 국가연금펀드(AP2)는 '18년부터 운용자산 400억달러(49조원) 중 120억달러(14조원)를 ESG 벤치마크를 추종해 운용하기로 결정함
-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와 네덜란드 연기금(ABP) 등 연기금을 중심으로도 책임투자가 보편화됨
- 네덜란드 공적연금인 ABP는 우리나라 일부 기업에 대해 탄소배출 저감 성과 부족을 이유로 투자철회를 결정함
- 코로나 19 사태 발생 후 유럽 전체 펀드 시장에서 1,480억 유로(202조원)가 이탈하였지만 ESG 펀드에는 약 30억유로(40조원)가 유입되었음('20년 1분기, '모닝스타' 데이터 기준)
- 미국 ESG 투자 동향
 -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이 미 연기금 중 최초로 ESG 투자원칙을 도입하며 빠르게 규모 확대됨
 - 미국은 ETF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운용사인 BlackRock과 Vanguard가 ESG 투자를 주도함
 - 미국시장에서 ESG 펀드는 S&P500 지수 수익률을 초과했으며, 이는 환경에 유해한 화석연료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IT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함
- 일본 ESG 투자 동향
 - '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15년 일본공적연금(GPIF)의 UN PRI 서명 이후 ESG 투자 규모 급격히 증가함
- 중국 ESG 투자 동향
 - MSCI는 신흥국 지수의 중국 A주 편입 비중을 현재 5%에서 '20년 20%까지 확대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ESG 정보공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임
- 한국 ESG 투자 동향
 -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의 합리적 책임투자원칙의 수립·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18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발표 이후 국내 ESG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

<국민연금 책임투자 추진 과정>
 책임투자팀 설립('13) → ESG 평가기준 마련 ('15)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18.7) → 책임투자의 직접운용 확대 결정 ('19) →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의 원칙' 신규 명시('20)

- 국내 ESG 펀드의 97% 이상이 일반 공모가 아닌 연기금·공제회를 통해 투자되고 있음
- 기존 ESG 투자가 '사회책임'과 '기업구조'와 관련된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며 바이오와 헬스 관련 ESG 투자로 관심이 옮겨감
- ESG 펀드가 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에 비해 코로나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손실률을 기록하면서 ESG 투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3. ESG 관련 글로벌 투자금융기업 동향

■ 미국 블랙록(Blackrock)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20년 투자 포트폴리오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발표함
- 블랙록은 자사의 투자기업들이 ESG 기준에 못 미칠 경우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영국 바클레이스(Barclays)

- 화석 연료 산업에 '16~'19년 사이 약 1,200억 달러(146조원)의 대출을 진행한 바클레이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함(3.20)
- 바클레이스의 이러한 결정은 영국 NEST(국민고용저축신탁)와 투자자들의 화석 연료 대출을 단계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따른 것임
- '21년부터 주기적·자체적으로 해당 목표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임

■ 한국투자공사

- 책임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투자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3억달러(350억원) 규모 ESG 전략펀드의 운용을 시작함 ('19.10)
- ESG 투자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업에 대한 ESG 경계 프로세스(* ESG 등급에 부정적 변화가 생기면 내부에 공표해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및 ESG 모델 포트폴리오 개발 예정임
- 국내 공공 투자기관에게 책임투자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ESG 데이'를 개최 예정임

■ 국내금융기업

- (NH투자증권) 'ESG 지주회사' 지수를 개발하기로 결정
- (SK증권) 18' 탄소배출권 사업 및 그린본드 시장 진출
- (KB금융지주) ESG 위원회를 신설('20.3)하여 기업대출과 투자 심사 반영 시 ESG 요소를 고려하기로 결정
- (신한금융그룹)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SVMF(Shinhan 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를 개발하여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화폐가치로 계산하고, 가치가 높은 사업에 선택적 투자 예정

III. ESG 평가 및 활용

1. 기관별 ESG 평가 및 정보공개 현황

- ESG 경영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기업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으나, 각 평가기관별 점수 산정방식이 제각각으로 서로 다른 평가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투자 기관들은 기업의 ESG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자체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ESG 평가 기관에 의존하고 있음
 - 블랙록 투자 스튜어드십팀 본부장은 2020년 DBR 인터뷰에서 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혹은 Sustainalytics의 ESG 평가등급과 함께 RepRisk가 분석한 ESG 리스크 데이터 등 제3자 리서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힘
 -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The Global Initiative for Sustainability Rating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125개 이상의 ESG 정보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ESG 평가기관의 점수 간 일관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하였음

테슬라(Tesla)에 대한 ESG 평가에서 FTSE는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고려하여 테슬라에 환경 부문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으나, MSCI는 테슬라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탄소량과 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환경부문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었던 것이 이슈가 됨

-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공시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몇몇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개발한 ESG 공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글로벌 표준으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은 없는 상황임
 - 지배구조 및 책임 연구소(Governance & Accountability Institute)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86%가 2018년에 ESG 또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공개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글로벌 표준은 없는 것으로 분석함
 - 유럽은 유럽연합(EU) 법률에 따라 이해 관계자가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사회 및 환경 문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시 의무화 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UN 글로벌컴팩트, OECD 가이드라인, ISO 26000 등 기업에 유용하다 판단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는 기업간 직접 비교가 가능하고 기업 공시자료에 공통적이고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ESG 성과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중에 있음
- 국내 기업들은 환경 분야 공시를 할 때 대부분 지속가능경영 국제보고 기준인 GRI(국제보고서가이드라인;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스탠다드를 사용하며, 기업에 따라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TF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표준, ISO 26000,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혼용해서 사용함
 - 삼성전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TCFD 권고안과 GRI 스탠다드, SASB 표준을 혼합해 사용하였으며, SDGs와 자사의 활동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소개함
 - 포스코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TCFD 권고안과 GRI 스탠다드와 SASB 표준,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인 ISO 26000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중장기적 목표 수립에 UN SDGs를 활용함

2. ESG 관련 지침 및 평가 정보 제공 기관

- 투자자를 위한 ESG 투자 원칙
 - UN PRI(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ing) : 사회적 책임투자를 위한 6대 원칙, 33개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
- ESG 경영 목표 설정 및 실행 지침
 - UN 글로벌 컴팩트 : 4개영역(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ESG 경영 10대 원칙을 제시
 - UN : SDGs 17개 영역에 대한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세계지속가능개발위원회(WBCSD), GRI, UN 글로벌컴팩트에서는 SDGs를 활용한 전략 수립 및 성과평가를 위한 SDGs compass guide를 제시

- 국제표준화기구 :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사회참여 등 7개 부문의 실행 지침을 ISO 26000 을 통해 제시
- OECD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권, 노동, 환경, 투명성,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경쟁, 조세 분야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범 행동규범을 제시함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공시) 작성 지침
 - GRI : GRI 표준에서 경제(6개 주제), 환경(8개 주제), 사회(19개 주제)에 대한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표준 제시
 - SASB : SASB 표준에서 77개 산업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요소를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보고하기 위한 표준 제시
 - TCFD : TCFD 권고안에서 기후변화 리스크/기회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관리, 목표설정의 4가지 분야에서의 정보공개 방법 제시
- ESG 기업 평가 정보
 - 국내 :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등
 - 해외 : B Lab 의 B 영향평가(The B Impact Assessment),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ESG Ratings, S&P Global 의 ESG Score, Sustainalytics 의 ESG Risk Ratings, FTSE russell 의 ESG Ratings 등

3. 기관별 ESG 평가 정보 특징 비교

- ESG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로 주식시장 상장회사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별 ESG 평가를 자료의 출처는 기업 공시정보, 정부/NGO 공개 자료, 뉴스/미디어 자료를 공통적으로 사용함
- 평가 지표 및 평가 방식에서는 기관별로 고유한 방법론과 세부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가 등급은 7개의 등급 구분을 사용하거나, 점수 기준의 순위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 평가 대상 : KOSPI 및 KOSDAQ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800개 종목을 기업
 - 평가 자료 : 기업 공시 정보, 정부부처 공개 정보, 일간지 및 전문지, 관련기관 출판물 및 각종 리서치 자료
 - 평가 지표 : 환경(E) 4개 분류 8개 KPI, 사회(S) 4개 분류 13개 KPI, 지배구조(G) 4개 분류 13개 KPI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
 - 평가 방식 : 하부지표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적용 후 상위지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 사용
 - 평가 등급 : AA, A, BB, B, C, D, E 의 7개 등급 구분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 평가 대상 : 900여개 대한민국 상장회사
 - 평가 자료 : 기업공시자료, 뉴스 등 미디어 자료, 감독기구/지자체 공시자료
 - 평가 지표 : 환경(E) 3개 분류, 사회(S) 4개 분류, 지배구조(G) 4개 분류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
 - 평가 방식 : 기본평가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가점 방식, 심화 평가는 부정적 이슈 발생에 대한 감점방식 적용
 - 평가 등급 : S, A+, A, B+, B, C, D 의 7개 등급 구분
- MSCI ESG Rating
 - 평가 대상 : 2,800개 이상 글로벌 기업
 - 평가 자료 : 기업공개자료, 뉴스 등 미디어 자료, 정부/NGO 데이터, 연구 자료
 - 평가 지표 : 환경(E) 4개 분류, 사회(S) 4개 분류, 지배구조(G) 2개 분류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
 - 평가 방식 : 각 평가항목의 가중 평균 방식 적용, 최종 점수에 대한 업종별 조정계수 반영 후 등급 적용
 - 평가 등급 : AAA, AA, A, BBB, BB, B, CCC 의 7개 등급 구분
- S&P Global ESG Score
 - 평가 대상 : S&P Global 1200 지수에 등재된 9,000개 기업
 - 평가 자료 : 회사에서 직접 제출한 비공개 데이터, 연례보고서, 지속가능성/CSR 보고서, 회사 웹 사이트, 규제 파일링 및 뉴스

- 평가 지표 : 환경(E) 21 개 세분류, 사회(S) 19 개 세분류, 지배구조(G) 28 개 세분류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
- 평가 방식 : 업종별로 해당하는 평가항목의 가중 평균 방식 적용
- 평가 등급 : 100 점 만점 점수 기준의 기업별 순위
- FTSE russell FTSE ESG ratings
 - 평가 대상 : 47 개 선진 및 신흥 시장의 7,200 개 증권 (회사)
 - 평가 자료 : 미디어와 언론, NGO 소스, 회사 보고서, 규제 파일 등의 제 3 자 데이터 및 자체적인 연구 결과
 - 평가 지표 : 환경(E) 5 개 주제, 사회(S) 5 개 주제, 지배구조(G) 4 개 주제에 대한 300 개 이상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 (SDGs 17 개 분야 적용)
 - 평가 방식 : 업종별로 설정된 주제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 평균 방식 적용
 - 평가 등급 : 5 점 만점 점수 기준의 기업별 순위



IV. ESG 관련 최신 뉴스

- [식음료업계 ESG 경영으로 소비자 마음 사로잡는다](#), 조세일보, 2021/03/18

 - 소비자들이 '착한 기업' 제품의 선호 경향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ESG 경영이 활발해지고 있음
 -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환경과 사회적가치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ESG 안하는 기업은 투자도 없다...국내 기업 23곳 큰 손 블랙리스트 올라](#), 임팩트온, 2021/03/17

 - 국민연금이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 리포트에 ESG를 담으라고 요구함
 - 한화, SK홀딩스, 우리금융그룹, 두산, 포스코 등 굵직한 국내 기업들이 세계 10대 연기금 투자 배제 기업으로 언급됨
- [\[ESG, 새로운 기회\] 선택 아닌 필수...2025년 53조달러 움직인다](#), 뉴스핌, 2021/03/02

 - ESG 관련 글로벌 운용자산규모(AUM)는 2025년에 53조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EU는 3월 10일부터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함
- [최태원 회장이 강조한 'ESG'가 뭐길래...삼성·현대차도 "선택 아닌 필수"](#), 조선비즈, 2020/12/13

 - SK는 ESG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삼고, 계열사 16곳에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함
 - 삼성, 한화, 현대, 롯데,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은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서는 발을 빼고 있음
- [Canada pension funds with combined \\$1.2 trillion under management ask companies to standardize ESG reporting](#), REUTERS, 2020/11/26

 - 캐나다의 8대 연금펀드는 투자기업에 표준화된 방식의 ESG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청함
 - 표준화 방식으로 SASB 및 TCFD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도록 요청함
- [Investors drop Brazil meat giant JBS](#), The Guardian, 2020/07/28

 - 투자자들은 브라질 육류 거대 기업 JBS의 지속가능성 의지 부족을 이유로 투자리스트에서 제외시킴
 - 브라질 정부에 삼림 벌채 증가에 대해 경고 한 Nordea는 아마존 화재 위기 이후 브라질 국채 매입을 중단함
- [The ESG trends that will drive 2021 – podcast](#), The Guardian, S&P Global, 2021/01/06

 - Biden 행정부는 파리협정에 재가입 하는 등 미국의 ESG 정책을 재활성화 할 것임
 - 투자자는 COVID-19, 근로자 안전 및 다양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회사를 계속 압박할 것임
 - 투자자 수요 속에서 ESG 공개 및 관련 데이터는 계속 발전 할 것임
- [Why It's Time To Prioritize ESG Initiatives In Your Business](#), Forbes, 2021/02/10

 - ESG 관련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직에 대한 압력은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비롯됨
 - 모건스탠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투자자의 85% (밀레니얼 투자자의 95%)가 지속가능한 투자에 관심을 표명함
 - ESG 요소 개선에 중점을 두면 기업 평판, 직원 참여 및 고객 충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

V. ESG 대응 방안

1. ESG 대응 및 적용 방안

- 기업들은 ESG 라는 시대의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며,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는 이제 기업의 역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경영활동에 고려해야할 필수 가치로 자리잡고 있음
 - ESG 경영활동이 기업문화에 자리잡고,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지원뿐만 아니라, 재무적 이익 증대로 연결되어야 함
 - 높아진 의식 수준이 반영된 소비는 ESG 경영 기업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성장기업에 투자가 몰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정부 또는 감시기관에서는 소비자가 기업과 제품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기업을 조사하고, 기업은 고객으로 하여금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도록 ESG 활동과 제품 경쟁력을 갖추어 올바른 ESG 경영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음
- ESG 라는 경영 트렌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대응 및 사업기회 발굴 측면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수익/이미지 제고 측면의 관리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사업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ESG 요소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전문인력 양성,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구축 등 ESG 관련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고객 관계 강화) '착한소비', '미닝아웃', '컨셔스 소비' 등의 소비 의식 트렌드에 따라 ESG 요소를 어떻게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노출하여 착한소비를 추구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함
 - (ESG 공시 의무화 대비) ESG 관련 규제 강화 및 공시체계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TCFD 권고안, GRI 스탠다드, SASB 표준, IOS 26000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ESG 분류 및 평가체계를 토대로 공시정보를 수집하고 공시체계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함
 - (ESG 관여도 증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경영진 및 전사 차원의 관여를 높일 수 있는 목표설정, KPI 설계, 인센티브와 같은 도구를 만들어 ESG 경영을 활성화시켜야 함

4. 에너지산업에서의 ESG 대응

- 모든 산업에서 ESG 요소를 도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산업인지, 자율경쟁으로 움직이는 산업인지에 따라 ESG 경영활동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에너지 시장은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으로, 규제정책 수립 및 적용이 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부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관리가 중요함
 - 중소 에너지기술업체나 부품/원료공급업체는 발주사의 요구로 정부 규제에 부합한 ESG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 빠르게 도래할 수 있음
- 영국, 스웨덴, 독일 등 ESG 관련 규제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진출하려는 우리기업들은 ESG 활동과 정보공시를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 에너지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정책과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정부규제 대응 관리의 우선순위가 높지만, 기업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질수록 대중의 이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계관리 활동도 여전히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참고자료>

경영매거진 CHIEF EXECUTIVE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0.09)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WEF, 2020.09)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 동향 (금융투자협회, 2020.06)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8 (GSIA, 2019.04)

K-New Deal Weekly 제5호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2020.11)

<참고사이트>

<https://www.theprivateoffice.com/investing/what-is-esg-investing>

<http://academy.krx.co.kr/contents/ACA/02/02080100/ACA02080100.jsp>

http://www.cgs.kr/business/esg_tab01.jsp

<http://www.gsi-alliance.org/trends-report-2018/>

<https://www.unpri.org/an-introduction-to-responsible-investment/what-is-responsible-investment/4780.article>

<https://www.unpri.org/policy/regulation-database>

<https://sdgcompass.org/>

<https://bimpactassessment.net/>

<https://www.msci.com/our-solutions/esg-investing/esg-ratings>

<https://www.spglobal.com/ratings/en/products-benefits/products/esg-evaluation>

<https://www.ftserussell.com/products/indices/esg>

<https://sustaininvest.com/service#Model>

글로벌 에너지 동향 이슈 보고서

발행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Tel. 02-3469-8400 Fax. 02-555-2430
www.ketep.re.kr

연구진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김봉주, 김현수, 류경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는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